

“지명직 최고위원 호남 배제는 한나라당 당헌 취지에 어긋나”

이재오특임장관 구레 방문

이재오 특임장관은 4일 “한나라당은 국민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인 만큼 국민과의 소통 차원에서라도 국회의원이 없거나 적은 호남과 충청에 각 1명씩 지명직 최고위원을 두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5면> 이날 구레군 토지연 오미마을에서 봉사활동을 벌인 이 장관은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서 호남출신을 배제하려는 것과 관련,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관례대로 호남·충청 출신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인선하는 것이 당의 헌법인 당헌 취지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은 한나라당 표가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원래 지명직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을 맡

이 배출하지 못한 지역과 소통하고, 그 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 당헌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내년 총선의 최고 과제는 지역갈등을 없애는 혁명적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를 통해 지역갈등을 풀 수 없다면 제도라도 도입해 없애야 한다”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과 관련해 “독도는 영토 문제다. 영토 수호는 붓글씨나 허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 단합된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특임장관실과 구레군 토지연 오미마을의 ‘1사 1촌 자매결연’을 위해 구레를 찾았으며, 5일까지 봉사활동을 펼친 뒤 여수로 이동해 여수세계박물관 홍보관을 둘러볼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북구 용전동 ‘용산 야구장’에서 사회인 야구팀들이 경기를 하고 있다. 열악한 구장 사정이지만, 선수들의 열정은 뜨겁다. 한 선수가 타석에서 배트를 강하게 휘두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열풍, 사회인 야구

광주 팀 500개·동호인 1만여명

리그만 20개 넘어 관리 주식회사·레슨장도 생겨

지난달 31일 광주시 북구 용전동 ‘용산 야구장’, 용산교 밑 고수 부지에 마련된 용산구장에서는 30도를 웃도는 땀방울 속에서 사회인 야구 대회가 한창이었다. <관련기사 3면>

직업 선수가 아니다 보니 평범한 땅볼도 ‘알을 까고’ 뜬공을 놓치기도 하지만, 포수는 몸으로 공을 받아내고 1루 주자가 더뎠을 때를 피하기 위해 2루에서 과감하게 슬라이딩하는 열정은 프로야구 선수 못지않았다.

덕 아웃도 변변치 않고, 라커룸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야구장 사정은 열악하지만, 선수들의 파이팅과 야구에 대한 열정은 삼복 더위도 잊은 듯했다.

야구 열풍이 뜨겁다. ‘보는 야구’에서 ‘즐기는 야구’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009년 100여 개였던 광주지역 사회인 야구팀 수는 올해 500여 개로 5배 가까이 늘었다.

팀당 선수 인원이 평균 2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광주지역 동호인 수는 1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모두, 경기를 관람하는 데 고치지 않고 직접치고, 달리고 그라운드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광주 베이스볼리그·광산리그·진

흥리 등 광주지역 사회인 야구 리그만 20여개에 달하고 있다. 규모가 가장 큰 광주 베이스볼리그 경우는 2009년 12개 팀에서 올해 110개팀으로 늘어 경기를 진행중이며, 광주시 생활체육회 야구연합회 소속 동호인 팀도 50개에 달한다.

등록되지 않은 팀까지 더하면 500개가 넘는 것이라는 집계도 나온다. 한때 운동장을 점령했던 축구 동호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야구가 금메달을 따고, 2009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준우승에 이어 기아 타이거즈가 10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거머쥐면서 사회인 야구팀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인 야구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리그와 구장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 문을 열기도 했다. 110개 팀이 참여해 12개 리그가 운영되고 있는 광주베이스볼리그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주)광주 베이스볼은 지난 2009년 설립됐다. 순순하게 팀들이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되는 이 회사는 야구장과 리그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정략영 대표는 “사회인 야구 동호

회가 크게 늘었지만, 야구장 부족으로 경기 및 연습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새로 야구장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어린 시절 배트와 글러브를 들고 동네 공터에서 하던 코를 리개들의 야구가 이제 사회인 야구로 탈바꿈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라며 “벌써 내년 리그에 가입하려는 팀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사회인 야구팀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뿐만 아니다. 실력을 키워 좋은 성적을 거두려는 동호인들이 늘면서 야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야구 레슨장도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김주철, 김민철, 유진호씨 등이 최근에 야구 레슨장을 여는 등 광주에만 4개의 야구 연습장이 영업중이다.

11년째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는 직장인 이세종(41)씨는 “야구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실력이 높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다”라며 “최근 후 동네 실내야구장을 찾아 배트 연습을 하고, 주말과 휴일에 팀 동료와 캐치볼을 하면서 실력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알림

‘김대중 평화사상과 동북아 안정’

DJ서거 2주기 국제학술회의



광주일보사와 전남도, 목포시, 신안군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18일)를 맞아 오는 10일 오후 1시30분 목포 오거리 문화센터에서 ‘김대중 평화사상과 동북아 안정’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DJ 평화사상의 계승을 통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로, 한·중·일 3개국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가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사상을 되돌아 보는 이번 국제학술회의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10일 오후 1시30분 목포 오거리 문화센터

◇기조발제=김대중 평화사상

발표=박경서 이화여대 석좌교수(전 대한민국 인 권대사·동북아 평화연구소 명예소장)
사회=윤영덕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



박경서교수

◇제1주제=김대중 평화사상과 중국의 역할

발표=진징이(金晶一) 중국 북경대학 한반도 연구 센터 부주임



진징이부주임

◇제2주제=김대중 평화사상과 일본의 선택

발표=다카미네 켄신(高嶽善伸) 일본 오키나와 시 의회의장



다카미네의장

종합토론=성진기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
김재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용의 전남대 일문학과 교수
사회=최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최협위원장

- 일시=10일(수) 오후 1시30분
- 장소=목포 오거리 문화센터
- 주최=광주일보,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 주관=(사)행동하는 양심 광주협의회
- 문의=062-223-1924, 062-220-0651

光州日報社

대학생 5만명 대부업체 빚 800억

1년새 40% 급증...연체율도 15% 육박

우리나라 대학생 약 5만명이 대부업체에 800억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대출은 1년 새 약 40% 증가했다. 연체율은 12%에서 15%로 올라 전체 대부업체 대출 연체율의 2배를 웃돌았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40곳의 대학생 대출 실태를 전조사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4만7945명의 대출 잔액이 794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일부 중박 대출을 제외하더라도 대학생 1인당 160만~170만원씩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셈이다.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은 지난해 6월 말 3만4944명에 565억 원과 견주 인원은 57.2%, 금액은 40.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된 대출금은 118억 1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77.



5% 늘었다. 연체금액을 대출잔액으로 나눈 연체율의 경우 1년 새 11.8%에서 14.9%로 3.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전체 연체율 7.2%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에 지도공문을 보내 대출을 자제하도록 주문했다. /연합뉴스

한방스파
한울정



피부의 최적 균형을 이루는 쉼터

한울 쉼터..

한국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한방’과 피부의 조화와 균형 상태인 ‘울려’를 구현하기 위한 한울 제품으로 몸과 마음의 휴식을 구현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한방 스파 SHOP

한울정의 특징

- 1인 1실, 1:1 케어
- 한방 화장품 한울 정품 사용
- 금수저&은수저 마사지
- 아모레퍼시픽 뷰티포인트 사용 및 5% 적립 가능

아리따움 충장직영점 2층에 있습니다. ◆ 예약문의 : 062)432-3030

